

최고 경영자의 컴퓨터마인드

여 인 갑

(피라미드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

컴퓨터 활용의 범주는 끝없이 넓어져만 가고 있다. 아마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까지 그 활용 범위가 우주, 산업, 가정 등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어느 첨단기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최고경영자들도 컴퓨터 없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특히 노트북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모든 스케줄이 노트북 안에 있고 거래처나 개인적 전화번호라든가 중요한 메모는 물론이고 전자우편을 쓰는 경우는 컴퓨터 없는 순간이 마치 빈 책상위에서 텅 빈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나 할 수 있다.

컴퓨터가 처음에는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인력절감이나 시간절약에 그 활용 목표를 두고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은행이나 항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컴퓨터는 사무기기처럼 보편화되어 버렸다.

그 후 단순자료 처리에서 진일보하여 경영자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여년간을 정보처리전문가와 컴퓨터하드웨어업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씨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접근방식이 의사결정시스템, 중역정보시스템, 전략정보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BPR(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까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관련 전문가의 경험부족과 전산환경의 여건 미비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고 전산에 관한 과감한 투자는 최고경영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도되는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리엔지니어링을 시도한 기업체의 70%가 실패 하였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말로만 떠드는 선진기법들이 실지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최신 경영기법들은 값비싼 경영컨설턴트들만 좋은 일을 시켜준다는 우스개 소리도 나돌 정도이다.

한편 눈을 돌려 정보기술 측면을 살펴보면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컴퓨터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싼 메모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부터 디스크 장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저장하는 자료도 몇자리 차지하지 않는 부호를 사용하여 좁은 디스크용량에 가급적 최대한의 자료를 저장하려고 궁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그러나 요즘 계속 떨어지는 메모리 값이나 값싼 저장장치의 출현은 정보처리전문가들을 이러한 고민거리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경영자가 정할 일이다. 즉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나를 확실히 요구 할 줄 알아야 한다. 남들이 전산화하니까 나도 따라서 전산화 한다고 전산전공자를 대려다 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일이다. 즉 최고경영자와 컴퓨터 마인드란 단순히 컴퓨터화에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최고경영자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개인 수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컴퓨터 마인드의 첫걸음인 것이다.

금광을 캐는데는 광산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캐는 일은 경영자가 직접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광산을 전문용어로 데이터웨어하우스라고 부

르고 있다.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얼마나 값 있는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해 놓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마치 보물찾기에서 좋은 상품을 주기 위해서 값비싼 상품을 장만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좋은 정보를 캐기 위해서는 값어치 있는 정보를 많이 쌓아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값비싼(?) 전문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마음이 컴퓨터마인드의 첫걸음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